

FTA시대의 식품산업 발전방향

이 규 천
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

I. FTA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?

- 다자간 협정(WTO, DDA)과 양자간 협정(한·미, 한·칠레, 한·중, 한·일 등)의 이중성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복잡성
- FTA체결 확대 → 다자간 협정의 무력화
- 산업이든 농업이든 강국의 위상강화(산업국가의 농업부문은 경쟁의 가속화와 심화로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됨)
 - 국제정치학상 국제사회의 주도권 보유국가의 재등장
 - 농업이 가지는 특성의 변화와 유지
- 자원전쟁의 본격화
 - 자원전쟁개념의 변화(지하자원 확보전략 → 생물자원 등 다양한 자원 확보 전략)

II. 우리 식품산업의 발전가능성

- 웰빙식품 선호도 증가
 - 서양인들의 동양식품 선호도 증가(비만예방, 성인병과 암 예방 등)
- 저칼로리, 저지방, 고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의 확대

-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을 통한 국제시장개척 가능성 제고
- 우수한 자원(자연적 조건)

III. 어떻게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?

1. 농정진단

- 농정 변화--농산업정책의 추진
- 지금까지의 농정의 핵심
 - 생산기반의 선진화로 농가소득 증대
 - 보상적 성격의 보전정책(시장개방 대응)--현상치유적 정책으로 농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끊임없는 문제해결 요구와 처방적 대응이라는 반복적 순환고리의 지속(엥겔스의 “국가의 사명이 병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병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”)
 - 농산업정책의 미약(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수출산업정책 중심)
- 미래의 농정 방향
 -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책

-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체를 집중 육성
- 국가연구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
 - 국가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국가연구기관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과 협력이 절실하며 단순히 연구를 위한 민·관의 협동연구는 의미가 없음
 - 진정한 상호보완과 협력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연구영역과 민간부문의 영역의 구분과 국가가 연구한 기초과학적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
 - 국가연구기관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면서 꼭 필요한 분야와 미래를 위한 기초분야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명지향적 연구에 집중하고 모든 연구결과를 납세자에게 제시해야 함
 - 민간부문은 돈이 되는 연구에 집중

2. 전략적 FTA 대응(World Top 10 농산품 개발사업(2008년부터))

- 수세적 대응방식 → 공격적 대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

2.1. 사업추진배경

- 한·칠레와 한·미 FTA체결, 앞으로 한·EU와 한·중 FTA등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업분야의 지속적 피해 예상
- 지금까지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은 농업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과 방어적인 소극적 대책에 치중하였으나, 이런 대책만으로 계속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없음
 - 기존의 농림부문 기술개발사업은 국내생산의 생산성 제고, 국내농업유지 등 방어적 차원의 소극적, 산발적 기술개발에 치중

-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상대국들의 시장을 공략하여 농업의 新활로를 개척하는 FTA 대응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
 - 우리 농산품 수입국의 위생기준 등 국제검역기준에 적합한 농산품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필요
 - 첨단기술개발과 기개발된 기술을 세계일류농산품창출 지향적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수출유망농산품을 집중 발굴·육성함으로써 농산품 수출의 획기적 증대
 - 대외경쟁력이 약해 국내농업의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피해감축전략추진으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시장 유지·발전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
 - 지금까지의 국내농업보호 위주의 기술개발전략과 다른 해외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전략의 양동전략 필요(총력적 대응체제)
 -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미래에 세계일류의 유망품목 육성과 수입상품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농산업 발전
 - 국내 수출·수입관련 농산업체가 주축이 되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 축적된 기술력과 인적·물적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이 기대되는 유망농산품을 세계일류 브랜드로 육성
- ※ 농산품수출기업:1,600여개, 고유브랜드 소유기업:160여개('06, 약10%)
- 농산업경영체 육성전략 수립과 농산업체,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공동펀드를 통해 세계일류농산품 개발로 수출증대

□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

- 한·미 FTA타결 이후 국내 농산물 중 수출유망품목 및 개방 민감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R&D 투자 확대
- 농업의 첨단화·수출산업화·신기간(新基幹)

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내외 농산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투자

- ※ 태국 농산품 수출진흥사업 추진('99년 시작): 미국농산품수입시장 점유율 12위 진입('06, 1,332백만불)
- 기존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초·기반기술과 연구인력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농산품 개발에 적극 참여
- 민간부문의 수출농산업체 육성을 통한 세계적 초일류 브랜드 농산품 수출체계 구축 지원
- 한·미 FTA 결과를 현시점에서 계측한 결과 향후 미국산 농산품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품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,465억원, 10년차에 8,958억원, 15년차에 1조 361억원 감소 추정

□ 국내외 시장 여건

- 국내 농산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다양한 수입농산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개방된 해외 시장개척 가능성 증대로 수출유망 농산품 개발 시급
- ※ 미국시장('06) : 농식품시장(1.25조불), 농산품 내수시장(2,400억불), 수출농축산물(570억불), 수입농축산물(653억불). (Plunkett Research, "Food, Beverage & Tobacco Industry", 2006년)
- 국내 농산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단순 농산품 생산에서 친환경, 안전성,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농산품 개발체제로 전환하여 국내 시장 수요 확보를 통한 미국농산품 수입비중 축소전략(20%이내)기술개발 필요
- ※ 세계시장의 평균 미국 농산품 수입비중은 11.3%('03) → 11.8%('04)인 반면, 한국의 미국 농산품 수입비중은 23.1%('03) → 29.7%('04)로 확대 (KIEP 세계경제 '05).
- 미국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세계일류 농산품 수출

(수출유망, 수출확대 및 틈새시장 공략)

- 미국의 농산품 수입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농산품 수입량 지속적 증대, 관세 및 검역절차 대폭 개선(호주, 뉴질랜드, 중미국가들 등)
- ※ 미국 농산품 수입시장(653억불, '06) 중 한국농산품 비중은 0.4%로 35위임, 2017년까지 배, 인삼, 김치 등 1억불 이상 수출 농산품 개발로 10억불 달성(4%점유, 10위권 진입)
- 미국의 농업경쟁력은 높지만 국내 농산품이 모두 취약한 것은 아님. 미국 주요농산품 수입 및 수출농산품을 분석, 주요 및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필요('06, 미국 Mintel사, 농수산물유통공사)
- ※ 미국 농산품 수입시장(억\$): ('02) 419 → ('04) 468 → ('06) 578 → ('07) 700
- ※ 아시아 수출경쟁국의 미국시장 농산품 수출 실적('06) :
 - ①인도네시아: 2,022백만불(6위), ②중국: 1,933백만불(7위), ③태국: 1,332백만불(12위)
 - ④일본: 358백만불(34위), ⑤한국: 252백만불(35위)
- ※ 미국의 주요 수입 농산품 품목('04, 468억불)
 - 축산류 : 쇠고기(34.4억불), 돼지고기(10억불), 치즈(8.4억불)
 - 곡물류 : 감자(6.5억불), 쌀(2.9억불), 귀리(1.9억불)
 - 채소류 : 토마토(11.3억불), 오이(3.8억불), 호박(2.3억불), 고추(1.4억불)
 - 과일류 : 포도(8.8억불), 파인애플(2.7억불), 사과(2.2억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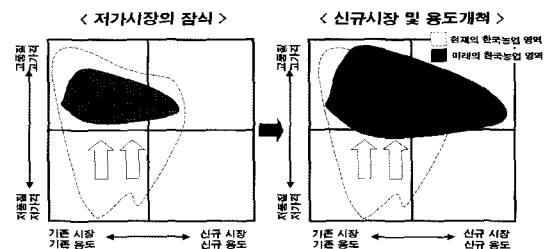
미국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현황('01~'05)

(단위: 천불)

품 목	2001	2002	2003	2004	2005	증감(%) (2005/2001)
배	13,390	15,091	12,122	14,668	21,611	61.4
파스타 및 라면	12,725	13,235	10,405	13,103	12,101	-4.9
설탕	3,921	4,465	3,402	4,419	5,115	30.5
밤	3,854	2,414	841	1,941	2,074	-46.2
향신료 및 허브	3,023	1,306	1,278	1,201	1,753	-42.0
커피	71	262	536	884	1,573	2,115.5
고추	2,866	1,134	1,085	1,032	1,553	-45.8
건조버섯	609	472	595	816	717	17.7
코코아	144	480	573	669	518	259.7
포도	-	-	-	-	456	-

자료: USDA, ERS

- 국제시장을 겨냥한 세계일류 농산품 개발은 한국주변의 세계 최대 농산품 수입국 일본과 더불어 고도성장 국가인 중국·대만·홍콩·러시아 등 잠재적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음(한·미 FTA,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, '06)



<그림 4> FTA시대 세계화시장 대응전략

2.2. 사업목표

- ☐ 세계 일류 농산품 Top 10 개발로 수출 10억불 달성
 - 미국수출 1억불 이상 10개 농산품 개발('17)
 - 현 2억여불 수출을 10억불 이상으로 증대
 - ※ 한국 IT제품은 세계일류 글로벌 상품으로 인식되어 수출시장개척
- ☐ 수입되는 농산품에 대응하여 친환경,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국제농산품 개발로 국내시장 확보
- ☐ 개방으로 인한 경쟁열위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전환하여 자연스럽게 농업의 구조조정 유도

2.3. 추진체계 및 방향

- ☐ 농림부가 사업을 총괄하고, 국가연구기관, 민간연구소, 농수산물유통공사, 농산업체,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, 민간수출업체,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적으로 추진
 - 농림부: 사업기획, 총괄조정
 - ARPC: 사업관리 및 평가 (농림부의 사업 사무국)
 - 농촌진흥청: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육종 등 품목관련 기술개발
 - 농수산물유통공사 : 해외시장 동향 및 소비

자의 기호변화, 시장개척에 필요한 정보 조사 및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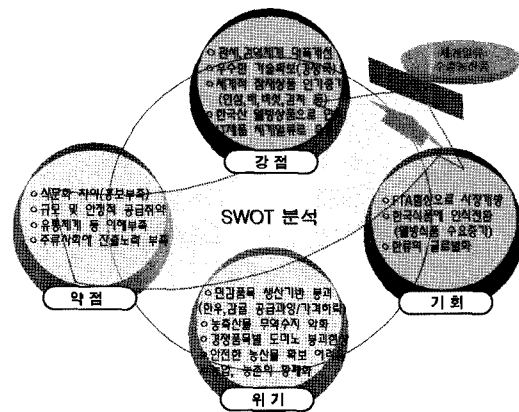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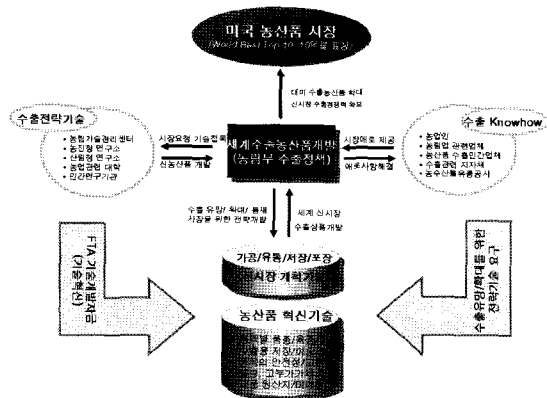
-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: 임산물의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기반 기술개발
- 대학연구자 및 민간연구자: 해외시장 수요 대응 첨단기술개발
- 농산업체: 개발기술 활용 세계일류농산품 생산
- 농산품 수출업체: 해외시장개척, 판로확대, 해외유통네트워크 구축
- 지방자치단체: 수출특화농업 추진

불 → ('06) 37,516천불

· 축산물 : ('02) 17,991천불 → ('04) 53,103천불 → ('06) 41,660천불

-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출전략농산품 개발 및 체계적 육성 추진
-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전략에 대응한 농산품 지정 및 기술개발 강화

FTA에 따른 미국시장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SWOT 분석



사업 추진체계도

- 세계화 및 개방된 농업여건 속에서 우리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일류 농산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세계일류 농업기술 혁신

※ 고려인삼 :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10대 세계일류상품 선정('01년 SERI),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고려인삼을 가장 먼저 연상(한국관광공사)

- 인삼류 : ('02) 3,579천불 → ('04) 6,425천불 → ('06) 8,367천불
- 버섯류 : ('02) 576천불 → ('04) 381천불 → ('06) 1,459천불
- 원예산물 : ('02) 29,515천불 → ('04) 30,085천

-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, 안전성, 고품질 및 고기능성 농산품 개발로 국내시장 수요확보

※ 한·미 FTA 체결로 최대 2조 2,800억원의 농업생산 감소 예상

-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가속화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악화 추세

- 對美 농산물 수출입현황 중 수출은 면류·꿀 및 로얄제리, 연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, 반면 수입은 사료·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2.7억불 증가로 농산물 교역 규모가 10배 이상('04년 기준) 차이

- 한·미FTA 타결로 가장 피해가 큰 민감품목인 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 등)과 과수분야(사과, 포도, 배 등)를 대상으로 선택과

집중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

2.4. 사업내용 : 세계일류 농산품개발

☐ 종자산업육성 :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○ 세계 최고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·수출산업으로 육성

- 국내품종 보급률이 낮은 분야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로열티 지급문제 해결 및 수입개방 대응

· 국산품종 점유율 제고('05→'10):장미 1% →15%, 딸기 10% → 50%

(국산품종 점유율 : 식량작물 95%, 채소 90%, 특용작물 80%, 과수 20%, 화훼 5%)

- 경쟁력 있는 채소류 종자 중심으로 수출 확대('05, 1,600만불 → '15, 1억불)

☐ 기술개발 촉진

○ 수출농산품 개발을 위한 수입국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및 종자개발

- 친환경농업, 안전성(tracibility 등), 수확후(post-harvest) 관리기술, 품질고급화 기술 등

외국시장개척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강화
-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농산품과 기능성 창출 첨단 기술개발연구를 병행하여 기술기반 농생명산업 육성

- 전통농업에 BT, IT, NT, E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용화·산업화 지향적 농산업 강화 기술개발

- 건강·기능성, 고부가가치 창출식품에 적합한 농산물 발굴 및 가공기술, 전통식품의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추진

☐ 수확후기술 혁신 : 유통구조 혁신 및 역동화

○ 수출시장을 겨냥한 저장, 포장, 수송 등 고품질 신선도 유지기술개발

- 지역특화, 안전성, 고품질 생산기술 확보와 최첨단 가공, 유통기술 확보 등으로 영농조합의 경쟁력 강화

○ 해외시장의 유통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